

2013년 11월 11일

주간 유통/화장품 뉴스

유통·화장품 한 주 따라잡기



▶ 아웃렛에 힘신는 롯데, 5 개 추가개장 (매일경제 2013.11.05)

롯데백화점이 현재 9 개인 아웃렛 점포를 신규 개장 등을 통해 내년까지 14 개로 늘리는 계획을 세움. 올해 말~내년 오픈하는 점포는 경기 이천, 고양, 구리점, 동부산점 등. 이 외에 내년 중 경기 남부권에서 추가 1 개를 오픈한다는 계획도 세움. 이 중 가장 먼저 선보일 곳은 다음달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천점. 영업면적이 약 5 만 3,000 m²에 달함. 동부산점은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들어서게 되며 개장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었으며, 영업면적은 5 만 3,000 여 m² 수준. 롯데백화점이 아웃렛 사업에 전력투구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 분야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경기 부진 등으로 유통업 매출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

▶ 이마트 간판 단 '변종 SSM' 앞으로 3 년 더 간다 (이데일리 2013.11.07)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의 상품공급사업이 앞으로 3 년간 더 계속될 전망. 이마트와 상품공급점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 현재 이마트의 간판과 유니폼 등을 제공받는 상품공급점은 총 235 개. 이 중에서 올해 이마트와 계약기간이 끝나는 점포는 6 개에 불과함. 나머지 229 개의 상품공급점과는 오는 2016 년 7 월이 되어야 계약이 모두 종료됨. 2016 년까지 현재의 상품공급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셈.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계약이 끝나는 상품공급점은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에뛰드하우스, 中 진출..상하이에 1 호점 문 열다 (이데일리 2013.11.04)

아모레퍼시픽의 색조전문 브랜드 에뛰드하우스는 지난 1 일 중국 상하이에 첫 매장을 오픈함. 이 매장은 상하이 난징시루에 위치해 있음. 또 내달에는 푸둥에 2 호점을 개장할 방침. 에뛰드 측은 한류스타를 모델로 둔 점, 또 그동안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 경험과 중국 관광객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중국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한편 에뛰드하우스는 2007 년 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11 개국 약 200 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 지난해 홍콩 몽콕 진출 때는 매장 개장 3 일 만에 1 억원, 1 주일 동안 약 2 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 아모레퍼시픽 "기본으로 돌아가자" (한국경제 2013.11.06)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은 최근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비상경영을 선포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말함. 손 사장은 회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고, 앞으로 대리점이나 협력업체와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함. 최근 아모레퍼시픽은 방문판매 대리점과 갈등이 불거지면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음. 아모레퍼시픽 측은 "내부 기강이 해이해진 면은 없는지 돌아보자는 차원에서 비상경영이란 단어를 쓴 것"이라고 설명함. 현재 대리점주들과 상생협력체 구성 방안을 논의 중이며, 서경배 회장이 서명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

▶ '김우중추징법' 결국 국무회의 통과...하이마트에도 불동? (헤럴드경제 2013.11.05)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숨긴 재산에 대해 몰수나 추징이 쉽도록 '범죄수익 규제 및 처벌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함. 일명 '김우중 추징법'이 차명주식 취득으로 논란이 됐던 롯데하이마트에 다시 불동이 될지 주목됨. 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설립 당시 하이마트(한국신용유통) 차명지분 15%. 이 지분은 당시 제조회사의 유통업 진출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차명주주로 출자·관리됐다는 게 옛 대우그룹 임원들의 증언. 하이마트에는 이런 과정이 있기에 김우중추징법에 따라 이 차명주식이 선의취득이나 장물취득이나 하는 법적다툼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

탐방 노트 및 주 이슈

▶ 코웨이 3Q Review

- 별도기준 매출액 4,892억원(7% yoy), 영업이익 970억원(54% yoy), 순이익 623억원(382% yoy)
- 상반기 가격 인상 및 자산폐기손실률 하락(12년 4.7%, 13년 1Q 3.5%, 2Q 3.0%, 3Q 2.8%)

▶ 락앤락 3Q Review

- 연결기준 매출액 1,269억원(-2% yoy), 영업이익 171억원(-10% yoy), 순이익 142억원(-18% yoy)
- 지역별 매출액 중국 7%(yoy), 한국 -11%(yoy), 동남아 37%(yoy) 중국둔화가 실적 악화 요인
중국둔화 이유: 새정부 뇌물단속 일시적 정책 영향(3분기 말 특판 주문이 갑작스러운 취소)
순이익, 베트남 생산법인의 면세 한도 초과 생산에 따른 일회성 세금 납부 26억원

▶ 롯데쇼핑 3Q Review

- 연결기준 총매출액 6,248십억원(16% yoy), 영업이익 289십억원(19% yoy), 순이익 229십억원(33% yoy)
- 국내 백화점 의류 매출 호조와 아울렛 고성장(기존점 4.9% 신장), 할인점 휴무제로 (기존점 4.6% 감소)
- 기타 홈쇼핑, 시네마 고성장, 하이마트 인수 효과로 영업이익 고성장
- 세전이익 원화강세에 따른 외화환산 이익 영향

▶ 롯데하이마트 3Q Review

- 연결기준 매출액 9,444억원(2% yoy), 영업이익 604억원(-10% yoy), 순이익 433억원(9% yoy)
- 3분기 비중이 높은 에어컨과 TV 역신장, 3분기 신규점 14점 출점(기존 5개, 디지털파크 7개, 롯데마트 2개)
- 3분기 기존 품목의 낮은 성장과 신규점 비용으로 영업이익 감소 불가피, 4분기 개선 충분

업종 코멘트

▶ 전주 동향(11/04~11/08)

- 금주는 현대백화점과 현대홈쇼핑의 실적발표가 있었음. 현대백화점은 13년 3분기는 전년대비 연결 총매출액 +2%, 매출총이익 +3% 반면 영업이익 -10%에 그침. 반면 현대홈쇼핑은 전년대비 취급고 +20%, 영업이익 7% 성장하며 홈쇼핑 3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은 시현함. 또한 코웨이,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의 3분기 실적 역시 컨센서스 이상의 결과를 낳으며 유통업 실적의 중심이 됨
- 생활, 화장품: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사업의 성장성 둔화로 국내외 모멘텀 축소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90만원 이하로 하락함. 코스맥스도 기업분할 공시 이후 향후 지주사 전환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음.

▶ 금주 전망(11/11~11/15)

- 유통: 대형 유통업에 대한 국정감사 및 판매장려금 이슈가 한 차례 지나간 뒤 롯데하이마트는 김우중 추정법과 관련된 부정적 뉴스 플로우가 전해짐. 그러나 법적 효력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지 않은 기사로 판단됨. 대형 유통업은 3분기 일시적 턴어라운드를 보인 이후 10월 부진으로 4분기 모멘텀이 다소 둔화 될 것으로 보임. 롯데하이마트는 대형 유통 대표주와 달리 4분기 베이스 효과에 이어 기존 롯데 디지털 파크 전환, 롯데마트 내에 샵인샵 입점 효과로 실적 개선 및 14년 사업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임
- 생활, 화장품: 중소형 화장품 생활용품에 대한 밸류에이션 급격한 조정을 보임. 4분기는 실적 안정성이 뒷받침 되는 코웨이,코스맥스의 주가 모멘텀이 안정적일 것으로 보임.

Index	종가(pt)	주간 절대 등락률(%)	Korea Retailers	주간 절대 등락률(%)	Korea Retailers	주간 절대 등락률(%)	Global Retailers	주간 절대 등락률(%)
KOSPI	1,984.87	-2.67	롯데쇼핑	-0.5	락앤락	-3.1	Wal-mart	1.2
KOSDAQ	515.74	-3.55	현대백화점	-7.5	코웨이	0.3	Carrefour	-0.2
유통업	509.35	-1.24	신세계	-4.9	아모레퍼시픽	-0.5	Tesco	0.7
주요 환율	현재가	등락률(%)	이마트	1.4	LG생활건강	-3.3	Wangfujing	-6.7
KRW/USD	1,064.50	0.33	CJ오쇼핑	-0.1	롯데하이마트	0.0	Parkson	0.8
KRW/JPY	1,083.68	0.29	GS홈쇼핑	1.2	코스맥스	-6.1	Sears	-2.5
KRW/CNY	174.77	0.39	현대홈쇼핑	-4.8	제닉	-7.1	P&G	1.7

자료: Bloomberg, Datastream, IBK투자증권

탐방 일정 및 실적발표일정

11월 12일(화) 4시 한국콜마

11월 14일(목) 4시 락앤락(불가)

11월 19, 20일 홈쇼핑 소규모 점심IR(신청자만 가능)

*동행불가 탐방의 경우 탐방노트 요청 가능

11월 12일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DART 공시)

11월 18일(월) 4시 이마트

11월 28일(목) 3시반 IBK주최 유통전망
롯데미래전략센터 이사 초청강연